

# 계란시장

(단위 : 원/10개)

지역 구분 월일	서울 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2월 2일	390	350	320	300	260	380	330	390	340	390	360	410	380
12일	390	350	320	300	260	380	330	390	340	400	390	410	380
14일	410	370	340	320	280	400	350	400	350	400	370	440	400
18일	410	370	340	320	280	400	350	410	360	410	380	440	400
21일	410	370	340	320	280	400	350	410	360	410	380	440	400
28일	410	370	340	320	280	400	350	410	360	410	380	440	400
80년 2월	340	310	288	258	228	340	316	358	329	350	320	357	327
3월	371	340	310	280	250	363	332	376	346	369	339	355	349
4월	402	357	327	297	266	388	348	403	360	401	358	411	368
5월	381	325	295	265	235	386	336	400	347	386	332		
6월	323	269	236	206	176	325	265	333	373	325	275	358	298
7월	345	290	260	230	194	343	286	353	298	356	295	372	312
8월	383	333	302	272	232	378	328	389	339	375	327	402	347
9월	418	359	310	280	240	400	350	415	365	410	369	435	380
10월	388	335	293	263	223	397	347	403	355	392	336	394	342
11월	393	330	300	270	230	386	324	399	336	380	332	396	342
12월	412	344	329	299	259	410	336	416	343	397	347	417	360
81년 1월	370	333	323	300		366	311	368	317	365	346	383	362
2월	402	362	332	312	272	392	342	401	351	401	372	428	392

## 월말경 회복세

국군 장병 위문용 제란수매와 구정경기에 힘입어 풀렸던 시장 상황은 구정이 지나면서 다시 침체하기 시작, 체화가 되면서 일부 생산자들의 덤핑출하가 증가하여 이증가격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예년의 경우 2월부터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등록금 준비로 인한 가계의 압박 때문에 일반가정소비의 감소와 더불어 특히 유흥업소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경기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초생추 신규입식상황은 작년도 전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약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1월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란계수수는 작년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환우계가 대량도태되고 충분한 신계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금년 6월경 이후에는 시세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절실히 아쉬운 것은 양계안정기금이다. 양계불황을 맞아 생산조절도 중요하지만 또한 시기적절한 소비촉진 홍보활동이 전개된 그 효과는 예상외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이제 업계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비난보다는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할 것이다.

2월말 현재의 체하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다가 3월말경부터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란가격 월별 추세 (서울지역 1979~81년) (단위 : 원/10개)

